

목포 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 요리교실 성황

청년·어린이 등 대상 다양한 강좌 남도 전통 맛 '남도 클래스'도 운영 목포의 맛 알리는 중심지 거듭나

목포시 향동에 있는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이 운영하는 요리 교실이 지역민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6월 새단장해 문 연 '해관1897'은 목포의 '맛'을 알리는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달부터 해관1897에서 요리 교실인 '오늘은 뭐먹지?'를 성황리에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미식문화갤러리는 목포항국제여객선터미널 앞에 있는 옛 목포세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이다.

목포세관은 지난 1897년 10월 1일 목포 개항과 동시에 해관(海關)이라는 이름으로 관세업무를 시작했으며 1907년 세관(稅關)으로 개칭한 뒤 1908년 목포진에서 지금의 장소로 이전했다. 이후 1968년 삼학도 이전 전까지 관세업무를 수

행했다.

해관1897에서는 목포 맛집 청년 대표들을 강사로 만날 수 있다.

청년과 어린이 등 다양한 수강생층으로 대상으로 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며, 남도 전통 맛을 배울 수 있는 '남도 클래스'도 마련됐다.

강좌는 한 주에 1~2차례 운영되고 있으며, 매회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요리 교실과 함께 외식업 지원 교육과 푸드 토크쇼, 디저트(후식) 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목포를 대표하는 '9미(味)'뿐만 아니라 젊은 MZ세대를 겨냥한 미식 관련 행사를 기획·운영한다. 이들 행사를 통해 해관1897을 목포만의 차별화된 맛과 특색을 있는 장소로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이 목포만의 맛을 직접 만들고 맛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고 있다"며 "쿠킹 클래스를 시작으로 유행에 맞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계속 기획·운영해 맛의 브랜드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목포시 향동에 있는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은 목포의 맛을 차별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획 행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진행된 요리 교실 '오늘은 뭐먹지?'에서 수강생들이 목포 대표 음식을 만들어보고 있다. <목포시 제공>

진도군 농수특산물 브랜드화 포장재·택배비 7억여원 지원

진도군이 농수특산물 브랜드화를 위해 7억원을 들여 포장재와 택배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농어업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작목반, 어촌계 등 단체와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종이박스, 플라스틱 용기, 파우치 등 포장재 제작·구매액의 50%를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 택배비 지원은 관내에서 직접 농수산물을 생산하고 농수산물 가공품을 직거래하는 단체와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택배비 1건당 8천 원 이내를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까지다.

오는 28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불가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농어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농·어·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

해남군, 다음달 25일

달마고도 힐링축제 개최



해남 달마고도 힐링축제에 참가한 탐방객들이 달마산 계곡에서 트레킹을 하고 있다.

해남군이 오는 3월 25일 해남 미항사 및 달마고도 일원에서 '2023 해남 달마고도 힐링축제'를 개최한다.

힐링축제는 아름다운 절 미항사가 있는 달마산에 조성된 17.74km의 둘레길 달마고도 일원에서 열리는 걷기 축제다.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우리의 첫 봄, 달마고도와 함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달마고도를 걸으며 봄을 만끽해보는 걷기, 숲속 버스킹과 재즈, 퓨전 국악, 가야금 병창 등 다양한 공연이 마련됐다.

노르딕워킹·명상 등 힐링 체험 프로그램과 SNS 인증샷 이벤트, 해남 특산물을 판매하는 달마장터도 열린다.

빼어난 산세와 다도해의 절경이 어우러진 해남 달마산에 조성된 달마고도는 미항사를 출발해 산허리를 감아 도는 17.74km의 둘레길이다.

달마고도는 수려한 달마산의 기암괴석을 배경으로 다도해를 조망하며 걸을 수 있다. 중장비를 일철 쓰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조성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옛길 그대로 조성했다. 2017년 11월 개통 이후 20여만명이 다녀가며 여행객들이 찾는 최고의 명품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청년 살기 좋은 영광으로 오세요

'농촌 살아보기' 등 다양한 사업

영광군이 청년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한다.

올해 영광군이 추진하는 '2023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오는 4월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도시에서 거주하는 만 40세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씩 두 차례 운영한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을 실행하기 전에 농촌에 거주하며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해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역 작물 재배기술 습득을 중점으로 한 '귀농형'과 농촌을 이해하고 주민들과 교류하는 '귀촌형', 청년들이 농촌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프로젝트형'이 있다.

영광군은 '프로젝트형' 사업을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청년 창업 주민사업체 우수 현장을 탐방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선진 사례를 체험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귀농·귀촌 누리집 (returnfar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광 청년이 지역에서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는 '2023년 영광군 청년 인턴십' 신청도 받고 있다.

영광군 일자리경제과는 지난 20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해 예산이 소진(총 20명) 될 때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참가자는 최장 3개월 동안 월 201만580원의 인건비를 받으며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다.

참여 사업장은 꼭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3인 이상이 근무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인턴십 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완도군 주민들이 산림조림사업으로 황칠나무 등을 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 나무 8만4000그루 식수

14억원 들여 96ha 조림사업

완도군이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 증진과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조림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완도군은 사업비 14억원을 들여 96ha에 완도호랑가시나무, 황칠나무, 편백나무 등 8만4000그루를 심을 계획이다.

조림사업은 섬 지역 산림 가꾸기(36ha), 황칠 특화림 조성(16ha), 일반 조림(30ha), 유휴 토지 조림(4ha), 산림 재해 방지 조림(10ha)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특히 섬 지역 산림 가꾸기 사업은 강한 해풍과 척박한 토양 등으로 훼손되고 있는 녹화·식생 복

원에 중점을 둔다고 군은 전했다.

유휴 토지 조림은 규모는 작으나 군민이 선호하는 사업으로 임야가 아닌 한계 농지, 마을 공한지 등 유휴지에 유실수, 특용수, 조경수 등을 심는다.

일반적으로 남부 지역 식재 시기는 보통 3~4월이 적기였으나 연평균 기온 상승으로 2~3월로 시기가 앞당겨졌다. 이에 군은 조림 사업 발주를 서둘러 3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박은재 완도군 산림휴양과장은 "앞으로도 꾸준한 산림 사업을 통해 산림의 선순환 구조를 이뤄 산주 소득 증대, 목재 공급의 안정화, 온실가스 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무안 주민사업체 3곳 '예비 으뜸두레' 선정

관광부 창업·경영개선 등 지원

무안군이 무안지역 주민사업체 3곳이 '2023년 관광두레 으뜸두레 선정 공모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2013년부터 시작된 관광두레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관광공사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숙박, 식음, 체험, 기념품, 여행사 분야 주민사업체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는 무안못난이마을, 쓰리에스, 이룰꿈부 등 3곳이다.

이들 주민사업체는 '예비 으뜸두레'로 선정돼 5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는다.

예비 으뜸두레에는 주민사업체 14개가 선정됐다. 지난해 관광두레사업체로 뽑힌 전국 156개 주민사업체 가운데 사업계획 완성도와 창업가능성 등의 기본요건과 공동체성, 지역성,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뽑았다. 5년간 최대 1억1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